

## 노인의 무력감, 사회적 지지와 생활만족도와의 관계

박 성 희\* · 이 지 현\*\*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00년 전체인구의 7.1%로 고령화사회로 진입하였고, 2019년에는 약 14.4%으로 증가하여 본격적인 고령사회로 도달할 전망이다(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05). 노인은 노화로 인하여 생리적인 신체기능의 퇴행적 변화가 오고, 이로 인해 발병되는 만성퇴행성 질환은 단순히 신체적 측면뿐 만 아니라 사회적, 정서적, 심리적인 측면을 포함한 전인적 차원의 건강문제가 발생된다. 노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이전에 강화된 가치 있는 일을 하지 못하는 무력한 상황에 처하게 되고, 신체, 사회적, 심리적, 정서적 기능이 더욱 약화되어 상황조절에 어려움을 겪게 되며 충분한 자원을 갖지 못하는 관계로 무력감이 가중될 수 있다(Miller, 1992). 특히 우리나라 노인의 무력감 의미와 정도를 연구한 Kim(1995)은 밀려남, 받아들여지지 않음, 덧없음, 의지할 데 없음, 기력을 다함, 단절됨, 뒤처짐, 쓸모없음 등의 8가지로 분석한 바 있고, 노인의 무력감은 본인 자신의 내부와 관련되어 경험할 뿐만 아니라 사회 안에서 자신과 의미 있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경험되어진다고 하였으며, 그 무력감 정도가 밝혀진 바에 의하면 많은 노인들이 신체적 기능 상실이나 약화와 가족 내에서의 소외, 자신들 스스로 정

상적인 노화과정을 수용하지 못하는 관계로 무력감을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Jeong, 1999).

사회적 지지는 다른 사람과의 의미 있는 상호작용의 결과로 얻게 된다. 노인은 자신의 환경과 앞으로의 사건에 대해 통제하거나 결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무력감을 예방할 수 있는 신체적·정서적·사회적 측면의 힘의 원천과 이러한 힘을 지지해 줄만한 지지체계의 자원이 감소함으로써 무력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을 많이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무력감은 지지체계의 자원을 증가시키거나 특히 자신과 의미 있는 사람과의 사회적 지지관계를 증진시킴으로서 줄여나갈 수 있다(Cho, 1995). 노인의 생활만족도는 노년기에의 적응, 성공적인 노화 및 정신건강의 지표로서 노인이 과연 자신의 생활에 얼마나 만족하느냐 하는 기본적인 삶의 질적 측면이다. 이러한 노인에게 중요한 생활만족도와 주요 관련 변인인 무력감, 사회적 지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노인의 무력감, 사회적 지지와 생활만족도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노인환자의 무력감과 사회적 지지에 관한 관계 연구(Cho, 1995)와 여성노인의 무력감과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Park, 2001)가 있었고, 만성질환 노인환자가 인지한 가족지지, 우울,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Cho, 2003)연구 등 주로 환자나 여성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있었으나 일반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었다고, 재가복지 서비스 수혜노인의 사회적 지지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춘해병원

\*\* 고신대학교 간호대학(교신 저자 E-mail: jihyunlee@kosin.ac.kr)

(Park, 1998) 등으로 주로 노인의 생활만족도를 증진시키는 중재 연구는 있는 반면에, 노인 건강에 있어 중요한 개념으로 알려진 무력감, 사회적 지지, 생활만족도와와의 관계를 규명하는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자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의 무력감, 사회적 지지, 생활만족도의 관계를 파악하여 노인 생활만족을 증진시키는 노인 간호 중재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시도하였다.

##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노인의 무력감, 사회적 지지와 생활만족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무력감 정도, 사회적 지지 정도, 생활만족도를 파악한다.
- 2) 대상자의 무력감 정도, 사회적 지지 정도와 생활만족도의 관계를 파악한다.
- 3) 대상자의 제 특성에 따른 생활만족도를 파악한다.

## 3. 용어정의

### 1) 무력감

무력감은 개인의 행위가 자신이 추구하는 결과나 강화를 가져오지 못할 때 겪는 감정을 말하는 것으로 자신이나 환경 또는 곧 직면할 상황을 자신이 통제할 수 없음을 지각한 상태로 정의한다(Miller, 1992). 본 연구에서는 Miller(1992)가 개발하고 Shin(1993)이 번안한 노인의 무력행위 사정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이 표현하는 언어적 반응, 정서적 반응, 일상생활 활동의 참여, 학습참여 등을 측정된 점수를 말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무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 2)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란 정서적 표현(애정, 사랑, 감정이입), 도구적 도움(재화와 서비스제공), 정보(상황에 대한 정보) 및 평가(자기평가에 관련된 정보) 등의 네 가지 중 하나 혹은 둘 이상을 포함하는 대인간 교류를 말한다(House, 1981). 본 연구에서는 노인을 대상으로 Park(1985)이 개발한 사회적 지지척도 중 가족과 친구 및 친지에 대한 간접적 지지척도로 측정된 점수를 말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음을 의미한다.

### 3) 생활만족도

개인의 생활전반에서 자신의 욕구와 욕망을 충족시켰을 때의 감정 상태를 삶에 대한 일반적인 느낌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말한다((Neugarten, Havingurst, & Tobin, 1961). 본 연구에서는 노인을 대상으로 Yoon(1982)에 의해 개발된 생활만족도를 측정한 점수로 점수가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 II. 연구 방법

### 1. 연구설계

노인의 무력감, 사회적 지지와 생활만족도의 관계를 규명하는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 2.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B광역시 B구에 거주하는 3개 노인대학과 1개 복지관에 등록된 65세 이상의 노인 20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그 중 본 연구에 부적절한 응답을 제외한 최종 158명을 분석 대상으로 사용하였다. 대상자는 다음 기준에 의해 선정되었다. ① 한국형 최소인지상태검사(K-MMSE) 24점 이상을 받은 노인 ② 연구목적에 동의하고 연구에 동참하기를 수락한 노인

### 3. 연구도구

#### 1) 무력감 측정도구

노인의 무력감은 Miller(1992)가 개발하고 Shin(1993)이 번안한 무력행위 사정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언어적 반응, 정서적 반응, 일상생활활동의 참여, 학습참여 등의 4개 하위요인 19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무력감이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가끔 그렇다' 2점, '자주 그렇다' 3점, '항상 그렇다' 4점의 Likert형 척도이다. 척도범위는 19점에서 76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무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Miller(1992)의 도구를 바탕으로 Shin(1993)이 번안한 도구에서 Cronbach's  $\alpha = .884$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888$ 로 나타났다.

#### 2) 사회적 지지 측정도구

사회적 지지의 측정은 Park(1985)이 개발한 간접적

으로 지각한 사회적 지지척도를 사용하였다. 사회적 지지 척도는 가족과 친구 및 친지로 구분하였고, 총 2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회적 지지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종종 그렇지 않다' 2점, '그저 그렇다' 3점, '종종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형 척도이다. 척도범위는 25점에서 12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Park (1985)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949$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986$ 으로 나타났다.

### 3) 생활만족도 측정도구

생활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Choi(2002)의 노인 생활만족도 도구를 사용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총 2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생활만족도가 '아니오' 1점, '그저 그렇다' 2점, '예' 3점의 Likert형 척도이다. 척도 범위는 20점에서 6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한 Choi(2002)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930$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929$ 로 나타났다.

## 4.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는 편의표집한 면담자 200명 중 본 연구에 부적절한 응답 42명을 제외한 158명을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예비조사 기간은 2005년 5월 1일부터 동년 5월 8일까지였고, 자료수집 기간은 2005년 5월 15일부터 동년 6월 15일까지였다. 자료수집 방법은 해당기관 담당자에게 전화와 직접 면담을 통해 허락을 받은 다음, 연구자가 연구목적을 설명한 후 면담에 동참하기로 협조를 구한 후에 5명의 훈련된 연구보조원과 연구자가 대상자에게 직접 설문지를 읽어주고 답을 하는 방식으로 작성하였고, 한 사람당 소요된 시간은 평균 30분이었다.

## 5.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하여 SPSS/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료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무력감, 사회적 지지, 생활만족도는 평균, 평균평점,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 2) 대상자의 무력감 정도와 생활만족도의 관계와 사회적 지지 정도와 생활만족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 3) 대상자의 제 특성에 따른 생활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t-test, ANOVA, Scheffé test로 분석하였다.

## III. 연구 결과

### 1. 대상자의 제 특성

대상자의 연령은 70~74세 노인이 31.6%로 가장 높았고, 75~79세 노인이 27.8%, 65~69세 노인이 23.4%, 80세 이상 노인이 17.1%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은 여자노인이 79.7%이었고, 남자노인이 20.3%이었으며, 결혼상태는 배우자와의 이별·별거·사별이 65.2%로 나타났으며, 학력은 초등학교 43.0%이었고, 무학이 41.1%로 나타났다. 가족형태는 혼자 사는 노인이 50.0%로 가장 많았고, 부부가 사는 경우가 17.7%, 혼자인 경우 미혼자녀와 사는 경우는 10.8%, 혼자인 경우 기혼자녀와 사는 경우가 10.1%, 부부와 기혼자녀가 사는 경우가 7.0%, 부부와 미혼자녀가 함께 사는 경우가 4.4% 순이었고, 주거 형태는 자가 44.3%로 가장 많았고, 월세가 29.7%, 전세가 16.5%의 순으로 나타났다. 단체가입을 한 경우는 65.2%, 가입하지 않은 경우는 34.8%로 나타났고, 직업을 가지지 않은 경우가 98.7%로 대부분이었다. 살아가면서 가장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식이 41.8%로 가장 높게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남편이나 아내가 23.4%, 친구 및 동료 13.3%로 나타났다.

### 2. 대상자의 무력감, 사회적 지지, 생활만족 정도

대상자의 무력감 정도의 평균은  $39.8 \pm 10.39$ 점(최소 19점, 최대 76점), 평균평점은  $2.09 \pm 0.54$ 점(4점 척도)이었다. 그 무력감의 하위영역을 살펴보면, 일상활동참여 영역의 평균은  $11.8 \pm 3.60$ 점, 평균평점은  $1.97 \pm 0.60$ 점으로 가장 높았고, 정서적 반응영역 평균은  $10.0 \pm 3.03$ 점, 평균평점은  $2.01 \pm 0.60$ 점이었고, 언어적 반응영역 평균은  $9.5 \pm 3.20$ 점, 평균평점은  $2.38 \pm 0.80$ 점이었으며, 학습참여영역의 평균은  $8.4 \pm 2.86$ 점, 평균평점은  $2.10 \pm 0.71$ 점 순으로 나타났다(Table 1).

대상자의 사회적 지지 정도의 평균은  $156.8 \pm 52.1$ 점(최소 50점, 최대 250점), 평균평점은  $3.14 \pm 1.04$ 점(5점 척도)이었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지지의 하위영역을

<Table 1> Powerlessness of the subjects

(N=158)

| Domain(item number)                   | M±SD       | (min - max) | Average grade±SD |
|---------------------------------------|------------|-------------|------------------|
| Verbal response (4)                   | 9.5± 3.20  | ( 4 - 16)   | 2.38±0.80        |
| Emotional response (5)                | 10.0± 3.03 | ( 5 - 20)   | 2.01±0.60        |
| Participation of Daily activities (6) | 11.8± 3.60 | ( 6 - 24)   | 1.97±0.60        |
| Participation of Learning (4)         | 8.4± 2.86  | ( 4 - 16)   | 2.10±0.71        |
| Total (19)                            | 39.8±10.39 | (19 - 76)   | 2.09±0.54        |

살펴보면, 친구지지 정도의 평균은 79.1±24.20점(최소 25점, 최대 125점), 평균평점은 3.17±0.96점이었고, 가족지지 정도의 평균은 77.6±31.93점(최소 25점, 최대 125점), 평균평점은 3.10±1.27점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2>. 대상자의 생활만족도의 평균은 77.6±31.9 점(최소 20점, 최대 60점), 평균평점은 2.01±0.50점(3 점 척도)이었다<Table 3>.

3. 대상자의 무력감 정도와 생활만족도의 관계

대상자의 무력감 정도와 생활만족도는  $r=-.433(p=.000)$ 으로 중간정도의 유의한 역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영역별 생활만족도의 관계를 살펴보면 언어적 반응 영역과 생활만족도는  $r=-.376(p=.000)$ , 정서적 반응 영역은  $r=-.392(p=.000)$ , 일상활동참여 영역은  $r=-.439(p=.000)$ , 학습참여 영역은  $r=-.182(p=.022)$ 로 중간 정도부터 약한 정도의 유의한 역 상관관계로 나타났다<Table 4>.

4. 대상자의 사회적 지지 정도와 생활만족도의 관계

대상자의 사회적 지지 정도와 생활만족도는  $r=.410(p=.000)$ 으로 중간 정도의 유의한 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이를 구체적인 영역별과 생활만족도의 관계를 살펴보면 가족지지 영역과 생활만족도는  $r=.347(p=.000)$ 로 약한 정도의 유의한 순 상관관계로 나타났으며, 친구지지 영역과 생활만족도는  $r=.425(p=.000)$ 로 중간 정도의 유의한 순 상관관계로 나타났다<Table 5>.

<Table 5>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and life satisfaction of subjects (N=158)

| Variable       | Domain         | Life Satisfaction |      |
|----------------|----------------|-------------------|------|
|                |                | r                 | p    |
| Social Support |                | .410              | .000 |
|                | Family Support | .347              | .000 |
|                | Friend Support | .425              | .000 |

7. 대상자의 제 특성에 따른 생활만족도

<Table 2> Social support of the subjects

(N=158)

| Domain(item number) | M±SD        | (min - max) | Average grade±SD |
|---------------------|-------------|-------------|------------------|
| Family Support(25)  | 77.6±31.93  | (25 - 125)  | 3.10±1.27        |
| Friend Support(25)  | 79.1±24.20  | (25 - 125)  | 3.17±0.96        |
| Total (50)          | 156.8±52.06 | (50 - 250)  | 3.14±1.04        |

<Table 3> Life satisfaction of the subjects

(N=158)

| Variable(item number)  | M±SD       | (min - max) | Average grade±SD |
|------------------------|------------|-------------|------------------|
| Life Satisfaction (20) | 40.3±10.03 | (20 - 60)   | 2.01±0.50        |

<Table 4> The relationship between powerlessness and life satisfaction of the subjects (N=158)

| Variable      | Domain                            | Life Satisfaction |      |
|---------------|-----------------------------------|-------------------|------|
|               |                                   | r                 | p    |
| Powerlessness |                                   | -.433             | .000 |
|               | Verbal response                   | -.376             | .000 |
|               | Emotional response                | -.392             | .000 |
|               | Participation of Daily activities | -.439             | .000 |
|               | Participation of Learning         | -.182             | .022 |

(Table 6) Life satisfaction by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158)

| Characteristic               | Category                              | n(%)      | M±SD        | t or F | p    | Scheffé             |
|------------------------------|---------------------------------------|-----------|-------------|--------|------|---------------------|
| Age                          | 65-69                                 | 37(23.4)  | 37.18±10.08 | 1.62   | .186 |                     |
|                              | 70-74                                 | 50(31.6)  | 41.15±10.14 |        |      |                     |
|                              | 75-79                                 | 44(27.8)  | 41.20±10.55 |        |      |                     |
|                              | Above 80                              | 27(17.1)  | 41.81± 8.85 |        |      |                     |
| Sex                          | Male                                  | 32(20.3)  | 42.20±10.35 | -0.09  | .926 |                     |
|                              | Female                                | 126(79.7) | 40.38±10.08 |        |      |                     |
| Marital Status               | Married                               | 55(34.8)  | 41.28±10.42 | 0.84   | .399 |                     |
|                              | Divorce                               | 103(65.2) | 39.85± 9.94 |        |      |                     |
| Education                    | Illiteracy                            | 65(41.1)  | 38.52± 8.95 | 1.19   | .117 |                     |
|                              | Elementary                            | 68(43.0)  | 41.15±10.96 |        |      |                     |
|                              | Middle School                         | 18(11.4)  | 41.27± 9.61 |        |      |                     |
|                              | High School                           | 7( 4.4)   | 47.14±10.62 |        |      |                     |
| Family Pattern               | Single <sup>a</sup>                   | 79(50.0)  | 38.61± 8.84 | 2.69   | .023 | d)a,<br>c)b,<br>e)f |
|                              | Single+not married Child <sup>b</sup> | 17(10.8)  | 43.82±12.74 |        |      |                     |
|                              | Single+ married Child <sup>c</sup>    | 16(10.1)  | 46.31±11.37 |        |      |                     |
|                              | Couple <sup>d</sup>                   | 28(17.7)  | 39.51±10.92 |        |      |                     |
|                              | Couple+not married Child <sup>e</sup> | 7( 4.4)   | 45.42± 8.26 |        |      |                     |
|                              | Couple+ married Child <sup>f</sup>    | 11( 7.0)  | 39.81± 6.67 |        |      |                     |
| Dwelling Pattern             | own house <sup>a</sup>                | 70(44.3)  | 43.63± 9.93 | 5.29   | .002 | a)b)c               |
|                              | Rent <sup>b</sup>                     | 26(16.5)  | 35.92±10.39 |        |      |                     |
|                              | Monthly rent <sup>c</sup>             | 47(29.7)  | 38.17± 9.72 |        |      |                     |
|                              | Whatever                              | 15( 9.5)  | 39.53± 6.92 |        |      |                     |
| Pocket Money<br>(10,000 Won) | 10 below                              | 96(60.8)  | 40.88± 9.77 | 1.57   | .211 |                     |
|                              | 11-19                                 | 18(11.4)  | 36.38± 7.69 |        |      |                     |
|                              | 20 Above                              | 44(27.8)  | 40.81±11.44 |        |      |                     |
| Leisure<br>Activities        | Take care of grand child              | 12( 7.6)  | 43.66±11.92 | 1.61   | .172 |                     |
|                              | Take care of animal, Plant            | 9( 5.7)   | 38.44± 8.66 |        |      |                     |
|                              | Calligraphy, Picture                  | 51(32.3)  | 42.53±10.00 |        |      |                     |
|                              | Walk                                  | 31(19.6)  | 39.61±10.18 |        |      |                     |
|                              | Whatever                              | 55(34.8)  | 38.32± 9.71 |        |      |                     |
| Presence of<br>Group Member  | yes                                   | 103(65.2) | 41.66±10.25 | 2.26   | .025 |                     |
|                              | no                                    | 55(34.8)  | 37.89± 9.42 |        |      |                     |
| Job Presence                 | yes                                   | 2( 1.3)   | 35.50±14.84 | -0.82  | .412 |                     |
|                              | no                                    | 156(98.7) | 40.42±10.07 |        |      |                     |
| Main Supporter               | Husband, Wife                         | 37(23.4)  | 40.17± 9.21 | 2.19   | .072 |                     |
|                              | Child                                 | 66(41.8)  | 42.81±10.51 |        |      |                     |
|                              | Brothers                              | 10( 6.3)  | 37.20±13.06 |        |      |                     |
|                              | Friends                               | 26(16.5)  | 38.19± 8.46 |        |      |                     |
|                              | Others                                | 19(12.0)  | 36.73± 9.39 |        |      |                     |

대상자의 제 특성에 따른 생활만족도를 살펴보면 가족 형태( $F=2.69$ ,  $p=.023$ )와 주거 형태( $F=5.29$ ,  $p=.002$ ), 그리고 단체가입 여부( $F=2.26$ ,  $p=.025$ )에 따라서 생활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 $P<.05$ ). 이를 구체적으로 사후 검증한 결과, 가족의 형태에 있어서 부부가 사는 경우가 혼자 사는 경우 보다, 부부가 미혼자녀와 함께 사는 경우가 기혼자녀와 함께 사는 경우보다, 혼자 일 경우 기혼자녀와 함께 사는 경우가 미혼자녀와 함께 사는 경우보다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

났으며, 주거 형태에 있어서는 자가인 경우가 전세인 경우보다, 전세인 경우가 월세인 경우 보다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단체에 가입 한 경우가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보다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Table 6).

## V. 논 의

노인의 무력감, 사회적 지지, 생활만족도의 관계를 살펴 본 바, 첫째, 노인의 무력감의 정도는 평균 39.8±

10.39점(평균평점 2.0±0.54점, 4점 척도)점으로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노인을 대상으로 무력감을 분석한 Park(2001)의 연구와 노인환자를 대상으로 무력감을 살펴본 Kim 등(1992)의 연구결과 보다는 낮게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는 상이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본 연구의 대상자는 노인대학에 출석하는 노인이기에 다른 노인들과 신체, 사회적으로 교제를 하고 자발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비교적 건강한 인데 비하여 입원노인환자는 전반적으로 활동이 제한되고, 질병으로 인해서 의기소침해진 결과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60세 이상의 종합병원에 입원한 급성기를 지난 노인환자를 대상으로 무력감을 연구한 Cho(1995)의 연구결과보다는 높게 나타나서 본 연구 결과와는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대상자가 65세 이상인데 비하여 연령이 낮았고, 급성기를 지난 회복기에 있는 대상자로 질병회복에 대한 자신감과 기대를 가진 결과에 기인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대상자별 비교연구가 필요하리라 본다.

둘째, 노인의 사회적 지지 정도는 평균 156.8±52.1점(평균 평점 3.1±1.0점, 5점 척도)로 중간정도의 정도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노인을 대상으로 주관적 지각에 따른 사회적 지지를 살펴본 Park(1994)과 Lee(1999)의 연구결과와 입원한 노인환자를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를 연구한 Cho(1995)의 연구결과 보다는 낮게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에 의료인의 지지를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료인에 대해 호의적으로 평가해 주려는 경향과 연구도구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같은 도구로 대상자들의 지지 유형에 따른 사회적 지지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또한, 배우자 사별노인을 대상으로 한 Jeon(1997)의 연구결과 보다는 본 연구대상자의 사회적 지지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연구대상의 차이로 배우자 유무에 따른 사회적 지지의 차이로 이해된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비교연구가 요구된다.

셋째, 노인의 생활만족 정도는 평균 40.3±10.10점(평균 2.0점, 3점 척도)으로 중간 정도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건강증진행위, 자아존중감 및 생활만족도를 연구한 Choi와 Paek(2002)의 연구, 지역교회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Lee(2002)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한편, 여성 재가노인의 생활만족도

를 측정한 Yoon(2002)의 연구에서는 본 연구결과보다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나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본 연구 대상자는 사회참여가 활발한 노인대학과 복지관에 출석하는 대상자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생각된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사회활동참여 정도에 따른 생활만족도 연구가 시행되어야 하리라 본다.

넷째, 본 연구에서 노인의 무력감 정도와 생활만족도의 관계를 살펴보면,  $r = -.433$ 로 중간정도의 역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이는 무력감이 낮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양로원 노인의 무력감과 생활만족도의 관계를 연구한 Jeon(1992)의 연구에서 무력감과 생활만족도간에 유의한 역 상관관계가 있다고 한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한편 영역별 무력감의 정도를 살펴보면 언어영역이 높고, 일상활동참여는 낮았지만, 생활만족도와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일상활동참여와의 관계가 가장 높고, 언어영역과는 가장 낮았다. 따라서 노인대학이나 시설노인이든지 거주에 상관없이 무력감과 생활만족도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무력감을 낮출 수 있는 특히 무력감 중에서도 일상활동참여를 높일 수 있는 간호중재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중재를 간호 실무에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본다.

다섯째, 노인의 사회적지지 정도와 생활만족도의 관계를 살펴보면,  $r = .410$ 으로 중간정도의 순 상관관계가 나타났는데 이는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아짐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가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Park(1998)의 연구결과와 재가복지 서비스 수혜노인의 사회적 지지와 생활만족도의 분석한 Park(1999)의 연구와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와 생활만족도를 분석한 Choi(1992)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한편 영역별 사회적 지지 정도를 보았을 때 가족지지 보다 친구의 지지가 있었을 때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대상자에 상관없이 노인들에서는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노인의 생활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적 지지를 높이는 특히 가족보다 친구의 지지를 높일 수 있는 간호중재 개발이 필요하다고 본다.

여섯째, 대상자의 제 특성에 따른 생활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가족형태, 주거 형태, 단체가입 여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가족의 형태에 있어서 부부가 사는 경우가 혼자 사는 경우 보다, 부부가 사는 경우에는

미혼자녀와 함께 사는 부부가 기혼자녀와 함께 사는 부부보다, 혼자 사는 경우에는 기혼자녀와 같이 사는 경우가 미혼자녀와 같이 사는 경우보다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주거 형태에 있어서는 자가인 경우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전세, 월세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단체에 가입한 경우가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보다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교회 노인들의 제 특성에 따른 생활만족도를 분석한 Lee (2002)의 연구에서 주거형태가 자가인 경우가 전세, 월세보다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결과와 일치하였으며, Kim(1987)이 사회참여 정도와 가족결속도가, Park (2002)는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접촉빈도가, Kim (1998)은 사회활동의 참여가, Kim(1994)과 Park (1998), Park(1999), Cho(2003), Jin(2000) 등은 사회적 지지와 생활만족도간에 유의한 관계가 있다고 한 결과와는 유사하였다. 그러나 노인을 대상으로 노년기의 생활시간과 생활만족도를 분석한 Park(1998)의 연구와 재가노인의 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Kim(1999)의 연구에서 경제능력과 생활만족이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고 한 결과와는 상이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생활만족도 측정도구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가족형태와 단체가입 여부가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본 선행연구가 없어서 직접 비교 할 수는 없었다. 따라서 추후연구에서 가족형태와 단체가입 여부에 따른 생활만족도를 파악하는 반복연구를 시도해 볼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 V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노인의 무력감 정도, 사회적 지지 정도와 생활만족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연구대상은 B광역시 B구에 소재한 3개 노인대학과 1개 복지관에 출석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들 중 K-MMSE 24점 이상이고, 본 연구 목적에 동의하고 연구에 동참하기를 수락한 200명이었다. 그 중 본 연구에 부적절한 응답을 제외한 최종 158명을 분석 대상으로 사용하였다. 연구도구로는 노인의 무력감은 Miller (1992)가 개발하고 Shin(1993)이 변안한 무력행위 사정도구로 측정하였고, 사회적 지지는 Park(1994)이 개발한 간접적 사회지지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생활만족도는 Choi(2002)의 노인생활만족도 척도를 사용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05년 5월 15일에서 동년 6월 15일

까지였으며, 자료수집 방법은 해당기관 담당자에게 전화와 직접 면담을 통해 허락을 구한 다음, 훈련된 연구보조원과 연구자가 구조화된 설문지를 배부하여 읽어준 후 답을 작성하게 하였다. 자료분석 방법은 SPSS/12.0을 이용하여 실수, 백분율, 평균, 평균평점, 표준편차, 최대값, 최소값,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t-test, ANOVA, Scheffé test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무력감 정도의 평균은  $39.8 \pm 10.39$ 점(최소 19점, 최대 76점), 평균평점은  $2.09 \pm 0.54$ 점(4점 척도)으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으며, 사회적 지지 정도의 평균  $156.8 \pm 52.1$ 점(최소 50점, 최대 250점), 평균평점은  $3.14 \pm 1.04$ 점(5점 척도)으로 중간정도로 나타났고, 생활만족도는 평균  $77.6 \pm 31.9$ 점(최소 25점, 최대 125점), 평균평점  $2.01 \pm 0.50$ 점(3점 척도)으로 중간정도로 나타났다.
2. 대상자의 무력감 정도와 생활만족도는 중간 정도의 유의한 역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r = -.433, p = .000$ ). 즉 무력감 정도가 낮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인 무력감의 하위영역과 생활만족도의 관계를 살펴보면, 일상활동참여 영역은  $r = -.439(p = .000)$ , 정서적 반응 영역은  $r = -.392(p = .000)$ , 언어적 반응 영역은  $r = -.376(p = .000)$ , 학습참여 영역은  $r = -.182(p = .022)$ 의 순으로 생활만족도와 유의한 역 상관관계로 나타내었다.
3. 대상자의 사회적 지지 정도와 생활만족도의 상관관계는 중간 정도의 유의한 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r = .410, p = .000$ ). 즉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내었다. 이를 구체적인 사회적 지지의 하위영역과 생활만족도의 관계를 살펴보면, 친구 지지( $r = .425, p = .00$ )와 가족지지( $r = .347, p = .000$ )의 순으로 생활만족도와 유의한 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4. 대상자의 제 특성에 따른 생활만족도는 가족형태( $F = 2.69, p = .023$ )와 주거 형태( $F = 5.29, p = .002$ ), 그리고 단체가입 여부( $F = 2.26, p = .025$ )에서 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사후검증한 결과, 가족의 형태에 있어서 부부가 사는 경우가 혼자 사는 경우보다, 부부가 미혼자녀와 함께 사는 경우가 기혼자녀와 함께 사는 경우보다, 혼자 일 경우 기혼자녀와 함께 사는 경우가 미혼자녀와 함께 사는 경우보다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

타났으며, 주거 형태에 있어서는 자가인 경우가 전세인 경우보다, 전세인 경우가 월세인 경우 보다 생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단체에 가입한 경우가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 보다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노인의 무력감은 비교적 낮았고, 사회적 지지는 중간 정도이고, 생활만족도는 중간 정도로 나타났다. 따라서 노인의 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일상활동참여를 고려한 무력감을 완화시켜 주고, 친구 지지를 강화한 사회적 지지를 향상 시켜줄 수 있는 활기찬 노인 간호중재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1. 노인의 생활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무력감을 낮출 수 있는 간호중재를 개발하고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를 할 것을 제안한다.
2. 노인의 생활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적 지지를 높이는 간호 중재가 요구된다.

## References

- Cho, J. H. (2003). *Relation among the family support, depression, and the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patients with chronic illness*. Unpublished master's dissertation, Daejeon University, Daejeon.
- Cho, M. Y. (1995). Relations Between the Hospitalized Elderly Patients' Powerlessness and Social Support. *Nursing Science*, 7, 109-126.
- Choi, J. A. (1992). A study on the social support network of the urban elderly. *Korean J Gerontol*, 12(1), 65-78.
- Choi, Y. H., & Paek, G. S. (2002). The study on health promoting lifestyle of the elderly. *Korean J Health Educ Promot*, 18(3), 103-115.
- Jeon, K. Y. (1997). A study on the conjugal support, the share of household activities and martial adjustmend in old age. *J Gerontology*, 17(20), 166-185.
- Jeon, S. A. (1992). *A study on the elderly health status, powerlessness, life satisfaction in the aged living in a home*. Unpublished master's dissertation, Busan National University, Busan.
- Jin, S. M. (2000). *The relationships among ADL, social support and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in home*. Unpublished master's dissertation, Ewha Womens University, Seoul.
- Kim, C. T. (1999). The factors affecting the elderly's life satisfaction. *Korean J Gerontol*, 19(3), 21-33.
- Kim, H. S. (1994). *The effects of economic state, social activity, and soial support on life satisfaction of the aged*. Unpublished master's dissertation, Kyungb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 Kim, S. Y. (1987). *A study on the facters which influence the life satisfaction in the aged*.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 Korean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05). *Social index of Korea*.
- Lee, S. E. (2002). *The relationship of spiritual well-being, loneliness, and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in local church*. Unpublished master's dissertation, Kosin University, Busan.
- Lee, Y. J., & Kim T. H. (1999). A study on the buffering effect of social support on the stress of the elderly who lives alone. *Korean J Gerontol*, 19(3), 79-93.
- Park, C. S. (1998). An analysis on the time-use and the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people. *Korean J Gerontol*, 18(3), 30-46.
- Park, S. Y. (1998). *A study about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on the satisfaction with life of the old in the low-income class*. Unpublished master's dissertation, Ewha Womens University, Seoul.
- Park, S. Y. (1999). *A study about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on the satisfaction with life of*



- the elderly on domiciliary care*. Unpublished master's dissertation, Ewha Womens University, Seoul.
- Park, Y. J. (2001).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owerlessness and social support in elderly women. *Korean J Gerontol*, 10, 75-95
- Yoon, S. R. (2002). *The effects of recreation dance on health in elderly women in a low class communit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hung-Ang University, Seoul.
- Miller, J. (1992). *Powerlessness: coping with chronic illness*. Philadelphia: F. A. Davis.
- Shin, J. S. (1993). The effect of the range of motion exercise on powerlessness and life satisfaction in the elderly. *J Korean Acad Nurs*, 23(1), 107-117.
- House, J. S. (1981). *Work stress and social support*. California: Addison-Wesley.
- Park, J. W. (1985).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social support scal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 Neugarten, B., Havingurst, R., Tobin, S. (1961). The measurement of life satisfaction. *J Gerontol*, 16, 134-143.

- Abstract -

## The Relationship among Powerlessness, Social Support and Life Satisfaction in the Elderly People

Park, Seong-Hee\* · Lee, Ji-Hyun\*\*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correlation between the feeling of powerlessness, social support and life satisfaction in the elderly. **Methods:** The subjects were 158 old people aged over 65 who were attending one of one college and three settlement houses for senior citizens located in B city. **Result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eeling of powerlessness and life satisfaction was in a moderate negative correlation with each other ( $r=-.433$ ,  $p=.000$ ).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and life satisfaction was in a moderate positive correlation with each other ( $r=.410$ ,  $p=.000$ ). It was found that the higher social support was, the higher life satisfaction was. There was remarkable difference in the form of family ( $F=2.69$ ,  $p=.023$ ), the form of residence ( $F=5.29$ ,  $p=.002$ ), whether to belong to a group ( $F=2.26$ ,  $p=.025$ ). **Conclusion:** For the reasons stated above, as the feeling of powerlessness is lower and social support is higher, life satisfaction is higher. The results clearly show that in order to improve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we need to ease their feeling of powerlessness and enhance social support to them.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nursing intervention program to reduce powerlessness and to improve social support for the elderly.

**Key words :** Elderly people, Powerlessness, Social support, Satisfaction

\* Staff Nurse, Chun Hae Hospital

\*\*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Kosin University